

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 진단도구 보완연구 선정평가 종합심사평

-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주한 <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 진단도구 보완연구> 위탁용역의 수행을 제안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.
- 평가위원은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6인으로 구성 하였으며,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6인은 콘텐츠진흥원 전문가 풀에서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3 배수를 추출하여 순서대로 섭외를 진행하였습니다. 평가기준은 미리 공지 해 드린 바와 같이 수행기관 전문성, 사업 이해도, 사업수행 능력, 사업관리 방안에 대하여 공정하게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.
- 선정평가는 대면으로 발표하고 개별 PC에 입력하는 온라인평가로 진행되었습니다. 평가위원들은 평가기준에 따라 발표평가를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. 연구 주제를 잘 이해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인가를 검토하였으며 참여 인력들이 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 보완연구에 필요한 실적과 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질문하였습니다. 해당 질문에 대하여 업체의 PM은 발표자료 및 구두로 답변하였습니다. 평가위원들 사이에 적절한 질의가 분배되어 질의응답이 이루어졌고,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.
- 이상의 내용을 감안해 각 위원들은 평가를 실시했고, 6인의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합산 및 평균점을 산출했으며, 그 결과 2개 업체 모두 협상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.